

# 잠 못 드는 불금엔 '심야책방'

### 마지막주 금요일 '책의 해' 행사 토론·산책하고 고민편지쓰고 "적어도 자정까지 문 열어요"

한달에 한번 정도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서점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일주일 근무가 끝나고 들뜨기 마련인 불금. 딱히 약속이 없다면 그냥 시간을 보내기에는 아쉬운 금요일 저녁, 떠들썩한 분위기를 피해 책을 고르며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떤까?



광주시 동구 지산동 '심야책방'이 운영하는 독서 관련 행사 모습. <심야책방 제공>

**■내일 심야책방 참여 서점**

**광주** 공백·라이트라이프·메이드인 아날로그·소년의서·심야책방·연지책방·책과생활·충장서림·타인의책지음책방

**전남** 순천 도그책방·여수 제일서적·완도살롱

기, 작가, 상담 전공자 등으로 구성된 고민편지팀에서 이에 대한 답장을 독자의 집으로 우편 발송하는 활동이다. 책방 측은 허가사도 게이코의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과 영화 '레터스 투 줄리엣' 등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0507-1300-7982)

책방 '공백' (봉선동)에서는 '무릎꿇고 찾아서 in 광주'를 진행할 예정이다. 손님이 자신의 코랄이 정해진 문장이나 순간을 찾아서 기록하게 할 계획이다.

소외된 텍스트 희곡을 살리는 행사도 진행된다. 인문사회과학예체능 서점인 '소년의서' (충장로5가)에서는 '아밤의 희곡 분석회'를 개최한다. 희곡을 통해 사회를 읽는다는 취지로 헨릭 입센의 작품 '인형의 집'을 함께 읽고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010-3256-2625)

박사 출신의 부부가 운영하는 '심야책방' (지산동)은 10명 안팎의 독자와 함께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함께 푸른길을 걸으며 늦게까지 책의 향기에 빠져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062-229-0687)

'충장서림' (금남로2가)에서도 밤 12시까지 문을 열고 '불금'에 책방을 찾아오는 독자들을 맞는다. (062-227-1932) 또한 '메이드인 아날로그' (양림동)에서는 수

채화로 책갈피를 만들며 창작의 기쁨을 누릴 예정이다. (062-400-0012)

요즘 핫이슈인 페미니즘을 소재로 한 토론회도 열린다. '타인의책 지음책방' (지산동)은 밤 11시부터 '잠들지 않는 토론'을 계획하고 있다. 페미니즘을 주제로 10명 이내의 참석자가 다양한 관점에서 왜 지금 페미니즘이 화제가 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예정이다. (062-457-1208)

순천과 완도, 여수에서도 심야 책방의 날 행사가 열린다.

'도그책방' (순천), '완도살롱' (완도)에서는 분위기 있게 와인 즐기며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도그책방은 그림책을 중심에 놓고 이에 맞는 와인을 선정해 이탈리아 요리 연구가의 음식 이야기를 함께 들을 예정이다. 일상 속에서 그림책을 보며 와인을 마시는 소소한 즐거움을 통해 어른들을 그림책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포석이다. (010-2889-1687)

한편 책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6월에만 77곳의 서점이 신청했고 7-12월에 참여 의사를 밝힌 서점은 포함하면 120곳이 넘는다. 조직위는 매월 추가 접수를 받아 참여 서점을 올해 안에 200군데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미투' 이후 한국 문단은 변했을까

### 문예지 '문학들' 여름호



올해 초부터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미투' 바람이 우리 문단에는 어떤 변화를 미쳤을까. 그리고 향후 우리 문단은 어떤 변화를 꾀해

하리라고 주장이다. 1990년대에 활발했던 페미니즘 연구가 기존의 문단 권력에 의해 문학 제도 내부의 분류 항목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끝났던 과거에 비해 지금은 익명의 페미니스트 다중이 문단 문학의 독점 체제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야 할까.

광주에서 발간되는 종합문예지 '문학들' (여름호·통권 52호·사진)이 미투 이후의 한국문학사를 들여다봤다.

권명아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는 '페미니즘, 문단 문학에서 문학의 정치성을 탈탈하다'라는 글에서 최근의 미투 운동 사태 속에서도 기록권을 버리지 못하는 한국문단의 주류 세력을 비판한다. 1990년대 이른바 '신경속 표절 사태' 때 불거진 문단 권력의 문제, 당시 활발하게 제기된 페미니즘 문제를 문단이 문학외적인 문제로 간과해 버린 과오가 지금의 미투 운동을 낳게 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몇몇 대형 출판사를 중심으로 한 독점 자본화와 노골적인 이익집단화에 대항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던 기회를 문단 스스로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권 교수는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확연

이변호는 5.18문학상 수상자와 작품이 소개돼 있어 문학적 관점에서 오월 광주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다. 또한 광주의 정체성을 새롭게 탐구하고 있는 '뉴 광주 리뷰' 등과 조선인 위안부의 삶을 예기하는 이영진(서강대학교 트렌스내셔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의 '위험한 기억'도 읽을 만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피아노 4대 웅장한 선율...광주대 연주회

### 내일 문화전당 극장2

광주대학교 문화예술대학 음악학과의 피아노앙상블연주회가 29일 오후 7시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에서 열린다. 이번 연주회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2018 예술대학 협력프로그램-ACC 대학공연예술제의 마지막 행사다.

이번 연주회는 4대의 그랜드피아노에 2명씩 앉아 8명이 함께 연주하는 특별한 공연이다. 레퍼토리는 '저주와 사자의 행진', '수탉과 암탉', '숲속의 뼈곡새', '백조' 등 짧은 악장마다 온갖 동물을 유

머와 섬세함으로 표현한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와 '사방 인형의 춤', '갈대 피리의 춤', '러시아의 춤' 등으로 구성된 차이코프스키의 발레곡인 '호두까기인형 모음곡'이다. 또 구노의 '파우스트 왈츠'도 만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4대의 그랜드피아노에서 나오는 웅장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으며 영상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함께 한다.

전석 무료. www.acc.go.kr. 문의 062-670-2659. /정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한국화·차요리...전통강좌 '청사초롱' 입상자 잇단 배출

### 내일 상반기 강좌 수료식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문화예술강좌 '청사초롱'이 각종 공모전에 입상자를 꾸준히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문화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예술강좌가 개설된 2012년 이후 수강생 중 공모전 및 경연대회 입상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4년 개설돼 이영진 강사가 담당하는 전통채색화반은 광주전남권 주요 공모전인 광주광역시미술대전, 전라남도미술

대전, 대한민국한국화대전 등에서 우수상과 특선, 입선작 수상 등 수상실적을 올렸다. 2014년 초기부터 전통채색화 수업을 받아온 수강생 중에는 공모전의 추천작가·초대작가까지 오른 수강생도 있다.

이 밖에 판소리강좌 수강생 2명이 각각 목포국악제 신인부 대상과 서봉국악제 제협마당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청소년 가야금병창반 수강생은 2014년 대한민국가야금병창대제전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남도의례음식장예에서 전통요리를 배운 수강생은 최근 차요리대회에서 우수상을 받

았다. 광주시지정무형문화재가 강좌를 진행하는 전통문화관 문화예술강좌는 판소리, 가야금병창, 전통음식, 전통채색화, 전통다례 등 10개로 현재 일반 시민 150여명이 강의를 듣고 있다. 상반기 강좌 수료식은 29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개최된다. 전통채색화반 작품전시회 '민화를 보다'는 전통문화관 입석당에서 오후 5시 30분 개막식을 시작으로 7월 6일까지 전시된다. 문의 062-232-150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통음식 강좌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 도쿄대 교수 '식민지 조선의 언어' 내일 전남대 강연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어기반사업단' (단장 신해진·국어문학과 교수)이 오는 29일 오후 2시 인문대 2호관 교수회의실에서 해외 석학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번 초청 강연 강사는 도쿄대학의 미쓰이 다카시(사진) 교수다. 미쓰이 다카시 교수는 '동아시아의 어문정치:식민지 시기 조선에서의 일본어 문제'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강연을 통해 중·일 전쟁 이후 조선 식민지 언어 정책을 살펴보고, 국어로서 일본어를 사용해야 했던 조선 사회의 여러 국면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 방수 부분설비(누수)

###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질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